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2. 라오디게아 교회

2013. 06. 02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3:14~17]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오늘로 미뤘습니다. 아마 편지하신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해야지요. 예수께서는 자기 칭호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요”라는 헬라어 “호 아멘”은 문자적으로 “아멘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사65:16) 이사야 65:16을 70인 역에서 “톤 데온 톤 알레디논(진실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RSV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새 영어 성경(NEB)에는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신실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과 진리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가 되는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아멘이시요”와 동일한 사상을 나타내는 칭호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아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인데요, 헬라어 “헤 아르케 테스 크티세오스 투 데우”입니다. “아르케”는 근원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의 태초라는 말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말을 “창조의 시작이신 이”라고 번역하여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칭호는 “아멘”이라는 칭호와 더불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미 설명한대로 아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멘이신 분이 “헤 아르케 크티세오스 투 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뜻인 창조의 근본이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적 번역입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즉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을 나타내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그 칭호에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포함했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칭호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관련이 있겠지요?

답: 당연하지요. 사대 교회 시대까지는 1:14~16에 묘사한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부터는 거기 묘사되지 않은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용하신 칭호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특히 창조의 근본이신라고 하여 창조와 관련된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특별히 창조와 관련된 기별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멘이라는 칭호도 이 시대에 특별히 성경 진리를 바르게 회복하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강한 불신이 교회와 사회에 편만할 것을 암시하고 진리를 회복해서 올바른 성경적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칭호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창조와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확실히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편지 내용을 살피면서 그런 사실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일 편지 내용 중에 그런 사실을 말할 기회가 없으면 그때 다시 설명하지요.

3.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칭찬이 없는 교회에 하신 책망의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 먼저 말씀을 읽은 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3:15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계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고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차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처한 환경 상태와 관련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절묘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아 약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습니다. 또 “더웁다”는 것도 물 사정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라오디게아로 끌어오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도시 주변의 주요 경관 중 하나인데 광석 침전물을 남겨 놓으며 히에라볼리의 온천에서부터 흘러나온 시냇물이 만든 폭포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수원이 이런 온천이니까 차가운 것이 아니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물은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친숙한 현상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특징적으로 적절히 보여 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라는 책망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책망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덥든지”하라는 요구는 양자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다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일 리

가 없지요. “차든지”와 “덥든지”의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그 교회가 냉랭했었던 것보다 더 위험했지요. 미지근한 그리스도교는 형식을 충분히 갖추고 복음의 내용까지도 보존하고 있지만 영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의 높은 이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열렬한 헌신을 잊어버리기 쉽게 합니다.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인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그가 이룬 조그마한 발전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커다란 필요와 자기가 완전의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지요. 계속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께서 토해낼 것입니다. 16절이 그렇게 책망하시지요.

[계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물에 대하여는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온천수가 오는 과정에 식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또 히에라볼리로부터 끌어온 온천수와 골로새로부터 가져온 찬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이 서로 섞여서 미지근하게 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마실 때 잘 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 버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4. 미지근한 상태가 실제로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그냥 미지근하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열심이 없고,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어떤 것이지요?

답: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17절에 열거하는 내용이 미지근한 실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구체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요하여”라는 말은 “페플루테카”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 완전히 부요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요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족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채우려는 간절한 바람이 없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실지로 부요하였습니다. 의학교가 있었고 좋다고 소문난 안약이 있었고, 라오디게아 도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요. “브루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 말입니다. 또 금융업이 발달해서 자금의 융통이 원활해서 부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하고 곤고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머나 교회와 대조를 이룬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가난하였으나 영적으로 부요하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지적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곤고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을 경우를 묘사하는 말인데,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물질적 부와 정반대로 가련하기 짝이 없

는 것이지요. (2)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별거벗은 것. “가난”은 라오디게아 인들이 금융업이 발달하여 물질적인 부를 쌓은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먼 것”은 라오디게아에 특수한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영적 시각 장애자로 분별력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별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의 검정색 양모가 유명해서 부자들이 양털 옷을 잘 차려 입었던 것에 비추어서 그들이 영적으로는 벗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이 이런데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부요하다고 착각하여 스스로 진리를 올바르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한심한 상태입니다.

5. 목사님,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권고하셨지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할 길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 그랬지요. 그것이 18~20절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계3:18~20]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비의 음성으로 간절하게 권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 곧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권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했지요.(벧전1:7)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인데 어떻게 금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는 것은 값없이 돈 없이 사라고 했습니다.(사55:1) 값도 안주고 돈도 안 주고 가지는 것은 얻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고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지요?(필요할 때 사지요.) 그렇습니다. 사라는 말씀의 뜻은 진정한 필요를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필요가 없으면 버립니다. 라오디게아는 자기의 가난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더할 간절한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광택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하였는데, 예수님은 검은 양모가 아닌 “흰 옷”을 사라고 권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사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입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의 잔치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좋은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잔치 자리에는 잔치 집에서 마련한 예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그들이 어쩌면 검은 양털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흰 옷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6. 그 참, 희한한 증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합니까?

답: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들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나는 성경 강론하면서 가끔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하나 같이 미지근한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은 병이 아니고 증세라고 고쳐줍니다. 라오디게아의 병은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둔 병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머리를 밖에 세워두고 머리 없이 저희들끼리 뭘 한다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든 것입니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에서 교회 재정상태도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도 잘 되고 또 이런저런 교회 사업도 잘 되었겠지요.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저희들끼리 인간적 사고방식과 계획으로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약은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베소 1:17,18을 읽어봅시다.

[엡1:17,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나 할 눈은 마음눈이지요.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결여된 교회입니다.

7. 예수님은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지금하시는 책망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하시는군요.

답: 그렇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책망 받는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생명을 얻어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19절에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읽어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잘못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책망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가 되겠지요. 우리는 성경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책망을 느끼고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개하라는 권고는 책망을 받는 교회마다 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하려면 지정의가 다 작용해야 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 작용입니다. 그 잘못이 싫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서적 작용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도 정서적으로 그것이 싫어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그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서적으로 그것이 싫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그것을 고칩니다. 그것이 의지의 작용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싫어지지 않아도 지성과 의지가 합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싫어지면 고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못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은 정서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에는 이런 쾌감이 동반합니다. 사단은 바로 인간의 그런 쾌감을 자극하여 사람으로 허물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8. 목사님 설명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 인간 의식 활동이 다 작용해

야 한다는 말씀 참으로 공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군요. 그러나 역사적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그게 무슨 말 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는 심판의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의롭다고 선고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행17:31을 한 번 읽어봅시다.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책들을 펴고 심판하는 일에 대한 계시가 두 번 있다고 요전에 말씀했지요. 하나는 다니엘 7:9~14이고 하나는 계시록20:11~15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신 후 천년기 후에 사건이지만 다니엘의 기록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의 사건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3:7에 주신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으니, 작정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에 대한 비밀도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그 작정된 심판 날을 성경을 연구하여 성령의 안약을 바른 눈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은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에게 지우지 않은 사단의 깊은 것을 찾아내는 그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루었는데, 사단의 깊은 속임수를 심판하실 날을 깨달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적은 능력으로 그것을 전하였고, 그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게 된 교회가 바로 심판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심판하실 날이 바로 하늘성소정결과 관련되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봉사를 시작하심으로 사단과 그의 대리자를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혔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엡2:19부터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엡2:19~22]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살후2:3,4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인데, 세상에서 그 존재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봉사를 통하여 이 존재가 살후2:3,4에 예언한 바로 그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벰전4:17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라고 기록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데 사실은 사단의 회라는 것을 심판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9. 그 시대가 정확하게 어느 시대입니까?

답: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예언한 작성된 심판할 날인 2300주야 끝부터입니다. 2300주야 끝이 작성된 심판 날입니다. 그때는 1844년이 됩니다. 1844년부터 심판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심판이 끝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고합니다. 계 22:11,12에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따른 사실이 회개를 실천한 것이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부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다시 교회가 또 교인 개개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기도 했고 또 해야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10. 예, 그렇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자세히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맡은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